

‘평화경제’ 언급 다음날 북 단거리 미사일

문 대통령 대응책 고심 속 안보실장 주재 장관회의 청 ‘대화’ 기조 유지...김현중 “공동변영 방안 모색”

북한이 연일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늘 오전 5시 24분경, 오전 5시 36분경 북한이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지난달 31일, 지난 2일에 이어 채 2주도 되지 않는 기간에 무려 네 차례나 발사체를 쏜 것이다.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반발로 보이기 는 하지만, 도발 빈도가 잦아지자 청와대 로서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 고조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받으며 발사 약 2시간 만인 오전 7시 30분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도록 하는 등 신속한 대처에 나섰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 직후 북한의 도발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을 향한 ‘평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바로 이튿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소 무색해진 모양새다.

여기에 북한 외무성이 담화에서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

히는 등 대남압박 수위를 높인 것도 문 대통령으로서의 부담이 될 수 있다.

북측이 먼저 “새로운 길”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연이은 발사가 자칫 큰 틀의 평화경제 구축 노력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조금씩

번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는 이번 도발이 ‘비핵화 협상의 큰 틀’을 흔들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평화체제를 정착하기 위한 남북 간 대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미간 공조를 바탕으로 대화동력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하

다”며 “북한 역시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중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남북 협력사업이 본격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비핵화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남북이 공동변영을 이룰 방안을 끊임 없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징용피해 한 풀어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6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에 사는 일제 징용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찾아 “징용피해자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내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일 수출규제 대책 논의...관계부처 장관들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총무실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한다.

청와대 측은 6일 이런 일정을 공지하며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취합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이재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자문위원들은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주형철 경제보좌관 등 경제정책 관련 참모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정교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 회의에 앞서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부회장급 경영인들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업계의 우려와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강병운 기자

“일 공격 맞서 단결”...대·중기 ‘분업협력’

박영선 중소벤처 장관 “이번 계기 경제체질 바꿔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한국의 경제체질을 바꾸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이 가장 바라는 것은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애로청취 간담회’에서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경제체질과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을 바꾸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발미로 한국을 다시 공격했다. 아베 일본에 의한 경제공격”이라고 규정하고,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을 흔들겠다는 계략이 숨어있는 것이 아니냐”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고를 넘기 위해 더 단결하고 협력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문의에 대해 소신껏 설명하겠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기업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여 일본특위 “일 여행금지 조치 검토 요청”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협력대책특별위원회는 방사성 물질 검출 등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일본 지역으로의 여행규제 조치 필요성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특위의 오기형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일본 여행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해 (여행규제를) 검토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재성 위원장은 전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도쿄올림픽과 무관하게 방사능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된 지역은 (여행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 간사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적절한지는 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방사능 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간사는 또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결정에 직접 영향을 받는 관리대상 품목으로 159개로 선정된 것과 관련, “다른 품목의 경우에도 수입 다변화·국산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전력물자이지만 일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수입을 다변화하고 국산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7~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된 사진전을 개최한다. /연합뉴스

여야, 북 발사체 유감 “대화재개” vs “정책전환”

“군사행동 중단 촉구”...“무력도발 국민 인내심 한계”

여야는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 기간인 6일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시하며 추가적인 군사 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북한을 향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데 방점을 찍은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데 강조점을 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

책회의에서 “7월 25일 이후 네 번째 군사행위로, 평화를 바라는 한국 국민 바람과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 거듭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남북과 북미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민경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저질스러운 막발과 무력 도발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런

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평화이고 협력인가”라며 “지금 당장 9·19 남북군사합의부터 무효화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북 정보수집과 판단 능력 또한 북한에 조롱당하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정부의 긴밀한 대응을 생계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의 침략과 도발에 강력히 규탄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라”고 강조했다.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북한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미대화를 재개하자는 촉구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고 있

는 것으로 보지만, 미사일 발사 자체는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북미 양국과의 대화를 통해 북미간의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반복되는 군사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체제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만큼 더 이상의 군사위협은 없어야 한다”면서 “군사행동은 자국의 교착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만큼 북한은 대화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지방법원 2019년단11023 특별상속한정승인
 상속인: 장광수, 최금자
 피상속인: 방 장승규
 (640609-1***** , 2019년 3월 2일 사망)
 최후주소: 전남 장성군 장성읍 수산길 14-508호 (부강아파트 2차)
 법정상속인 장광수, 최금자의 피상속인 방 장승규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 하여서 한 2019. 6. 24자 상속한정승인신고가 2019. 7. 26자로 수리 되었으므로, 위 망인에 대한 채권자 및 유증을 받으신분은 이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에 또는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정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7일
 한정상속인: 최금자 (010-4609-3381)
 채권신고주소: 전남 화순군 북면 만선길 256

광 주 고 등 법 원 제1형사부 판 결 공 시
 제1심 광주고등법원 2018재노5 사건번호 내란부화수형 피 고 인 박상규
 위 피고인은 내란부화수형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7. 26
 판 사 김 태 호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하화환 3만
 근조화환 3만
 경조화환 7만원
 Ta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백성 302-0316-649511

전남매일 언론 일자리 창출 캠페인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

임야
 삽니다. 010-6834-7400
 지분물건 환영, 신속처리